



한전 군산지사, 보훈대상자 감사물품 전달

한국전력공사 군산지사(지사장 박상수, 노조위원장 고동훈)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24일 지역 내 보훈대상자들을 위한 감사물품 전달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국가보훈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안부를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자는 전북서부보훈지청을 통해 선정됐다. 이날 군산지사 직원들은 보훈대상자 가정을 직접 방문해 전기사용과 관련한 불편사항을 상담하고, 여름철을 앞두고 활용할 수 있는 침구류 세트를 전달했다. 한편 군산지사는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생활 불편을 점검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 실천에 나섰다. 박상수 군산지사장은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사회로부터 더욱 존경받고 예우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남원시 자원봉사센터, 2026 상반기 보수교육

남원시 자원봉사센터는 24일, 관내 등록 자원봉사 활동처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2026 상반기 보수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이후로 위축된 청소년 자원봉사 참여를 다시 이끌어내고, 현장 관리자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 남원시 청소년수련관 류진호 관장을 초청해 '청소년 특성 이해 및 프로그램 기획'을 주제로 진행, 청소년들의 심리와 행동 특성을 분석하고 의무감이 아닌 '재미와 보람'을 바탕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현장 맞춤형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이어진 실무 교육에서는 최근 개정된 자원봉사기본법의 핵심 내용을 요약·안내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장수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

장수소방서(서장 한동규)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소방용수 확보와 재산 대응 골든타임 사수를 위해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장수군청과 합동으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반경 5m 이내는 주·정차 금지구역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수소방서는 이번 합동 점검 기간 동안 관내 주요 상가 밀집 지역과 주택가 이면도로 등을 중심으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남원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아버지학교' 마무리

주 1회·4주 과정 진행... 가정 안에서 아버지·남편의 존재와 의미를 일깨우는 계기 마련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지난 4일부터 25일 까지 총 4회에 걸쳐 운영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아버지학교'를 마무리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주 1회, 4주 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회기(6월 4일)는 '아버지의 영향력'을 주제로 아버지의 4대 기능과 원가족 관계를 돌아보며 스스로의 역할을 성찰하고,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며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을, 2회기(6월 11일)는 '아버지의 남성'을 주제로 남성의 특성과 갈등 원인을 이해하고 회복 방향을 탐색했으며, 아내에게 편지 쓰기와 사랑표현 실습을 통해 부부 소통을 강화했다.

3회기(6월 18일)는 '아버지의 사명'을 다루며 남편과 아버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변화에 대응하는 자세를 점검하는 한편, 자녀에게 편지를 쓰며 부모로서의 책임을 되새겼으며, 4회기(6월 25일)는 '아버지와 가정'을 주제로 부부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건강한 대화법을 익혔다.

수료식에서는 배우자와 함께 세족식과 마음 나누기를 진행하며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겼으며, 한 수료자는 "아내와 세족식 등을 함께하며 아버지라는 존재의 무게와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봤다며, 앞으로 가정 안에서 더 좋은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일진 센터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에 건강한 가족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전하며, 앞으로 개설될 부모 교육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복지센터는 앞으로도 다채로운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가족 기능 강화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2026년 제2차 이사회 개최

장학생 선발·추가 모집 의결 등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은 지난 24일 부안군청 3층 중회의실에서 2026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제1호 안건 2026년 1학기 장학생 선발 심사(안), 제2호 안건 2026년 장학생 추가모집(안)을 심의했으며 두 안건 모두 원안 가결했다.

제1호 안건인 2026년 1학기 장학생 선발 심사에서는 반값 등록금, 다자녀장학금, 특기장학금, 대학 비전학 장학·취업 학원비 지원금 등 4개 분야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

재단은 신청자에 대한 자격요건 및 서류 검토를 거쳐 총 1071명의 장학생을 선발하고 10억 67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또 제2호 안건인 2026년 장학생 추가 모집(안)을 의결함에 따라 보다 많은 학생들이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 선발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재단 관계자는 "지역의 미래를 이끌 인재를 육성하는 것은 부안의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투자"라며 "학생



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누구나 공정하게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군민과 출향인, 기관·단체의 소중한 후원이 지역 인재들의 꿈을 키우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재단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미래 인재 육성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단은 2006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1만 3000여명의 학생에게 126억원 이상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지역 인재 육성에 앞장서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완주군 관내농축협, 완주농기센터와 간담회 개최

농협 완주군지부(지부장 원천연)와 관내 농·축협, 완주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는 25일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농업경영력 강화를 위하여 완주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농정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완주군 관내 농축협 지도경제사업 책임자와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과 농업인들의 실의증진을 위한 농업정책, 그리고 완주군에서 재배하고 생산한 농산물 유통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원천연 농협 완주군지부장은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영농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완주군 농기센터와 협력을 이어가겠다"며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협이 계속해서 앞장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남원소방서, 한국 119청소년단 입단식 개최

남원소방서는 지난 6월 24일, 용북중학교 금연동아리 소속 2~3학년 학생들의 '한국119청소년단' 입단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단식은 학교 내 금연 문화를 선도해 온 용북중학교 학생들이 소방 안전과 봉사 정신을 배우고 실천하는 119청소년단으로서 새로운 첫걸음을 내딛는 뜻깊은 자리이다.

입단한 10여 명의 학생은 선서를 통해 단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앞으로 화재 예방 캠페인 및 각종 안전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다짐했으며, △미래 소방관 체험 및 직업 탐색 △소방 및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 △생활 주변 안전 위험 요인 제거 활동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안전 문화 확산에 앞장서게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국유림관리소, 산불 대응 합동훈련 실시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소방수)는 25일 무주양수발전소 일원에서 무주소방서, 무주군청, 무주양수발전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산불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합동산불진화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국가중요시설인 무주양수발전소 인근에서 지진 발생으로 산불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으며,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과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목표로 마련됐다. 훈련은 무주양수발전소 북서측 송전탑 인근 산림에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설정해 단계별로 실시됐다. 이번 훈련은 산림과 국가중요시설을 동시에 보호해야 하는 복합 재난 상황을 가정해 진행했다. /무주=손승호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사

010-9645-4113

삼천지사

010-2333-4791

서신지사

272-9417

호지지사

010-6645-9935

중앙지사

010-9088-6674

인후지사

246-6855

송천지사

255-2404

팔복지사

253-6844

군산지사

010-8329-6677

익산지사

858-9823

남원지사

632-3996

김제지사

545-1227

남원지사

632-0996

순창지사

653-0444

부안지사

010-2425-4182

고창지사

563-6999

일성지사

010-9642-2725

진안지사

433-3064

정읍지사

536-3787

장수지사

010-3682-6157

무주지사

010-4172-3800

*구독료 : 월13,000원, 1부 500원 인쇄인 김은주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통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화회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通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돌리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열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빗마루와 난간을 돌리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